

미국 내 중국연구*의 변화를 통해 본 중국위협론 논의의 재고찰

김유리**

요약

본 연구는 미국 내 중국연구의 발전과정 및 연구환경을 분석하여 1990년대 중후반부터 제기되어 온 “중국위협론”의 발생 배경과 지속 요인을 새로이 진단하고자 하였다.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분분했던 중국위협론의 등장과 확산 과정에 미국 국내의 연구환경과 연구자 구성의 변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위협론 관련 기존 연구들에 대한 보완을 시도하였다. 미국 내 중국연구의 전반적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1980년대 이후 중국 국내정치와 대외관계 연구가 분리되고 세분화된 경향과, 이와 함께 대외관계 연구의 범위와 연구자 구성이 크게 확장되면서 대외정책, 군사안보 등 각 분야별로 분석 시각이 분리되어 왔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중국 국내정치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자료와 이해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연구를 수행해 온 반면, 대외관계 연구는 일부 중국전문가들 외에도 일반 국제관계 전문가, 언론, 기업, 정책연구소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게 되었다. 중국위협론은 이렇게 중국 국내 및 대외관계 연구가 분야별로 분리된 상황과 함께, 대외관계 연구에 참여하게 된 다양한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대중국 인식과 정보로 인해 시기와 이슈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중국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미국의 중국연구 상황과 중국위협론 논쟁의 사례를 거울삼아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대외관계 연구와 중국 국내 정치사회 전반의 연구를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제어: 중국위협론, 미국 내 중국연구, 중국 국내정치, 중국 대외관계

* 본고에서 ‘중국연구’는 사회과학계열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대외관계 분야의 중국연구를 지칭함.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I. 서론

이 글은 미국 내 중국연구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 미국에 촉발되어 세계적으로 많은 논쟁을 일으킨 “중국위협론(China Threat Theory)”의 발생 및 지속 원인을 재고찰한 문헌연구이다.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치, 경제, 군사적 위협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미중관계의 변화 및 때에 따라 발생하는 이슈를 화제로 삼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미국 내 중국연구자들의 구성과 그 연구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론에서는 미국 내에서 중국의 꾸준한 경제성장과 군사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르는 위협에 대한 미국 내 논의의 현황을 개괄하였다.

지난 해 8월 중국의 항공모함 시험운항 소식이 기사화되었을 때, 미국 정부 기관과 주요 언론에서는 다양한 전망과 함께 우려를 표시하였다. 항공모함 보유가 가지는 군사적 상징성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장, 중국의 군사현대화 작업에 따르는 군사적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반복되었다(Page 2011). 언론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재조명하며 2000년대 후반 이후 다소 잠잠해졌던 중국위협론의 화두가 다시 등장하였고, 미 국방부의 2011년 국회 연례보고서에서도 중국이 군사적으로 점점 더 많은 영향력과 책임을 지게 되었음을 언급하며,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의 위험성을 우려하였다(미 국방부 2011). 이에 대하여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국의 언론들은 중국위협론이 다시 거론되는 분위기를 경계하는 의견이 실리기도 하였다(China Daily 11/08/26, 8).

중국의 부상과 위협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미중관계의 변화, 양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천안문사태 이전까지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 발전에 대한 미국 연구자들의 시각은 대체로 시장경제와 경쟁의 효과를 신뢰하면서 자유화와 민주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천안문사태 이후

그런 기대는 타격을 입었으나, 곧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1990년대 초반과 중반에는 중국의 경제발전 요인과 그 영향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협이 될 지에 대한 논쟁은, 과거 일본이나 유럽의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 잠식 우려를 제기했던 위협 논쟁과 그 출발점은 유사하였다. 그러나 일본이나 유럽과 달리 정치체제가 상이한 중국의 급성장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곳곳에서 미국의 이해와 대립하거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직결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는 경제성장에 힘입은 군사안보적 역량 강화에 대한 우려가 겹쳐, 대외관계와 군사안보 분야에서 중국위협론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군사안보적 위협, 국제정치경제 구도의 변화 및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중국위협론이라는 화두로 이어져온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중국위협론 논쟁이 다소 줄어들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미중 관계도 대립보다는 협력을 우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공모함 시험 운항에 대한 반응에서 엿볼 수 있듯, 경제성장과 함께 군사현대화 작업의 성과가 드러나고 군사력의 확장이 표면화될 때마다 위협론도 꾸준히 되살아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갈래로 발전하고 세분화되어 온 중국연구의 경향이 결국 미국의 대중국 인식과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중국위협론 논쟁의 전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Ⅲ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중국의 부상을 대하는 미국의 입장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경제 급성장 원인과 그 전망에 대한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미국 내 중국연구자들의 주된 연구주제였으며, 중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중국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들 외에도 많은 일반 국제관계 전문가 및 언론, 기업, 정책연구소가 참여하여 중국의 부상 및 정치, 군사적 영향과 정책 대안을 찾는 과

정에서 중국위협론이 불거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중국연구자들과 확장된 전문가 그룹 간에 중국에 대한 인식과 의견에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기존의 중국연구는 점차 지역, 기관, 주제별로 세분화하는 추세로, 중국 국내 상황을 깊이 연구하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중국의 대외정책과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도 중국 국내정치 및 내부적 상황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나치게 세부적인 연구에 치중한 나머지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않는 경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Shambaugh 2008, 23). 자료가 방대해지고 깊이가 더해지는 대신, 중국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줄어들어 가는 것이다. 이와 달리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을 국제적인 중요 변수로 고려하기 시작한 국제관계 전문가 등은 국제관계 상의 역학관계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연구환경이 계속 분리되면서 주제와 전망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환경과 연구자 구성은 중국위협론 논쟁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II장에서는 기존 저작들을 토대로, 미국에서 중국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전 방향과 분화 과정을 정리하였다. 이어 III장에서는 중국연구 발전의 연장선상에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국위협론 논쟁의 발생과 지속을 연구자의 구성 및 연구환경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군사안보를 포함한 대외관계 연구가 국내정치 연구자들의 세분화된 연구와 분리된 점, 기존 중국 대외관계 연구자들과 그 밖의 일반 국제관계 전문가, 언론 및 기업의 분석이 병존하게 된 점 등을 살펴보고, 그것이 중국위협론의 지속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결론을 겸하여 IV장에서는 세분화되면서 분리된 연구환경과 연구진을 상호 연계하는 노력도 필요함을 강조하며, 중국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한국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II. 미국 내 중국 연구의 발전과 분화

1. 1990년대 이전의 중국연구 발전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미국 내 중국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및 정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주제와 방향이 달라져 왔다.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 중국 내 정치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연구주제와 대상의 변화를 가져왔고, 미중관계의 정상화는 자료의 접근성이나 학문적 시각의 확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80년대 이후로 자료의 수집, 인터뷰, 중국 방문 또는 협력연구가 늘어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연구가 크게 확대되지만, 그 이전까지 형성되어 온 연구경향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내의 연구환경 변화는 중국연구 발전에 큰 변수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 이전까지 미국 내 중국연구 동향과 변화를 개관하면서, 하딩(Harding 1984)은 먼저 정부기구나 또는 관련 재단의 재정적 지원 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부의 전략적 요구에서 비롯된 정책연구와, 포드 재단 등 대표적 재단과의 연계 및 지원 규모가 연구자와 대학원생 숫자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정부나 재단의 지원은 중국과의 대립이 첨예하고 중국 정부 구조와 정책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필요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증가하였다가, 미중관계가 완화되고 자료가 풍부해진 1980년대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¹⁾ 각

1) 초기 미국 내 중국연구의 전개는 린드벡(Lindbeck 1971)의 연구에 통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중국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면서 2차대전 직후에는 주로 Rockefeller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Far Eastern Association(후에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로 개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1960년대 이후에는 Ford Foundation의 지원으로 많은 연구소와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Joint Committee on Contemporary China(JCCC, 후에 Joint Committee on Chinese Studies로 개칭)가 창설된 후 1960년대 동안에 JCCC에서만 103명의 연구자에게 115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고, 30회의 국제학술회의가 있었다. 미국 내 중국연구에 있어서 포드 재단의 지원금액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1952년에서 1969년 사이에 약 2천7백만 달러에 육박하였으며, 장학금 및 유명대학 중국연구소와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비로 주로 사용되었다.

대학에서 중국연구를 위한 교수와 학생을 얼마나 선발하고, 중국연구가 사회과학분야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았다.

연구 주제의 경우, 1960년대에는 미국 내 중국연구자의 숫자도 많지 않은 초기 단계였으므로, 중국에 대한 기본지식 제공과 학문적 기반을 닦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의 정치경제적 상황 파악이 우선이었고, 주된 자료는 당시 중국 정부 발표나 관련기사,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기본이 되었다.²⁾ 1970년대에는 문화대혁명 초 홍위병들에 의해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여 문화대혁명의 구체적인 원인과 과정을 고찰하는 데 주력하였다.³⁾ 이후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제한적으로 중국에 방문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분야별로 보다 깊이 있는 조사연구를 추진하게 되었고, 마오쩌둥 이후 중국의 변화 원인과 전망을 탐색하게 되었다.⁴⁾

미국 내에서 중국연구자들의 활동 영역도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다. 1960

-
- 2) 1960년대 미국 내 중국연구 대표저작 중 중국공산당과 관료기구 관련하여서는 D. Barnett, *Cadres, Bureaucracy, and Political Power in Communist China* (1967); J. Townse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Communist China* (1967); L. Pye, *The Spirit of Chinese Politics* (1968) 등을 들 수 있으며, 범죄 관련하여 J. A. Cohen, *The Criminal Proces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63* (1968), 국가-사회관계는 E. Vogel, *Canton under Communism* (1969); F.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1966) 등이 있다.
- 3) 1970년대 중국연구 중, 정책결정과정 관련하여 K. Lieberthal, *A Research Guide to Central Party and Government Meetings in China, 1949-1975* (1976); J. Lindbeck, *China: Management of a Revolutionary Society* (1972)를 들 수 있고, 인물 중심의 연구로 L. Pye, *Mao Tse-tung: The Man in the Leader* (1976); L. Dittmer, *Liu Shao-Ch'i and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1974) 등이 있다. 국가-사회관계에서는 H. Y. Lee, *The Politics of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1978); S. Rosen, *Red Guard Factionalism and the Cultural Revolution in Guangzhou(Canton)* (1982), M. Goldman, *China's Intellectuals* (1981) 등을 들 수 있다.
- 4) 1980년대 미국 내 중국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 대외관계 등 각 분야별로 심화되었던 바, 국내 정치 관련 대표저작으로는 D. Lampton, *Paths to Power* (1986); J. P. Bur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Rural China* (1988); K. Lieberthal and M. Oksenberg, *Policy Making in China* (1988) 등이 있으며, 중국대외관계 관련하여서는 D. Barnett, *The Making of Foreign Policy in China* (1985); J. W. Lewis and X. Litai, *China Builds the Bomb* (1988); H. K. Jacobson and M. Oksenberg, *China's Participation in the IMF, the World Bank, and GATT* (1990) 등이 있다.

년대 연구자들은 재정 지원의 증가에 힘입어 중국연구 프로그램의 입지를 다지고, 대중의 지식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와 기업에 대중국 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미국의 대중국 외교정책 형성에 기여하였다.⁵⁾ 이어서 1970년대에도 중국 관련 정부 요직에 참여하거나, 교육사업, 문화교류 등이 확대되면서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1980년대에 들어서자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책제안보다는 연구 위주로 나아가게 되었고, 일반 지식 제공이나 정책자문보다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연구, 중국 학계와의 협력 연구 등 보다 학문적인 측면에 주력하게 되었다.

〈표 1〉 1990년대 이전 미국 내 중국연구 동향 및 변화(1960년대~198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연구 환경	·미국 내 중국연구의 본격적인 시작 ·정부, 포드재단 등의 재정지원	·베이비붐 세대의 양적 성장 ·젊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시각 제시	·교수/학생 수 및 재정지원의 상대적 감소 ·방대한 자료검색과 장시간의 방문조사 가능
연구 주제	·중국공산당의 운영방식과 관료체계 ·중국공산당 노선과 발전전략	·지도층 내의 역학관계 ·문화대혁명의 원인과 결과 ·1970년대 후반 미중관계 정상화 노력	·개혁 관련 주제의 다양화 및 관련 자료 제공 ·관료기구, 기업, 지역 등 특정 기구나 제도 고찰 ·외교정책 또는 외교문제
연구 자료	·중국정부의 공식발표 ·국민당의 제공 자료(첩보, 전파내용 등) ·중국인 난민 인터뷰	·문화대혁명 관련 정보 유입 ·비공식 자료, 홍위병 신문 등(1966~1968) ·1968년 이후 탈출 난민 인터뷰	·중국정부 지료/테이터 ·정부 출판물, 정부요인 인터뷰, 회고록 ·제한적 현지 방문조사
활동 영역	·학문적 기반 조성 ·중국 관련 공개강연 등	·중국 관련 지식 확대 및 우호적 관계에 주력	·학문 분과에 따라 연구에 보다 집중
성과	·중국 관련 기본지식 ·전체주의적 통제 강조 ·사회 및 경제 전체에 대한 통제에 관심	·분산(분권) 점차 강조 ·지도층 내 균열과 다양화에 초점 ·연구의 심화(사례연구 등)	·구조적 관심: 중간기구/조직에 의한 정책 형성 연구 ·학문 분야별로 다양화 ·비교 및 역사적 접근
한계	·자료의 한계로 일반적 수준에 그침 ·공식적 조직, 공식 이데올로기와 정책에 초점	·비교/역사적 시각 결여 ·마오주의 해석을 일방 수용 ·중앙/지방 또는 엘리트/대중 조직 등 대립구도에 집중	·세부적 연구의 발달로 통합적 연구가 적어짐

5) Doak Barnett, John Fairbank, Lucian Pye, Robert Scalapino, Richard Walker 등이 참여한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의 활동을 일러로 들 수 있음.

위의 <표 1>은 1990년대 이전까지 미국 내 중국연구의 변화를 정리한 하딩의 글에서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연구환경, 주제, 자료, 활동영역 등을 간단히 제시하였다(Harding 1993, 14-40).

2. 1990년대 이후 중국연구의 변화와 논쟁의 확산

1990년대의 미국 내 중국연구는 1989년 천안문 사태와 구소련 붕괴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천안문 사태 이후 미중관계는 상당 기간 냉각되었으나, 1990년대 급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지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연구 범위는 오히려 확장되었다. 페리(Perry 1994)는 하딩의 조사에 이어 1990년대 미국 내 중국연구의 경향을 분석하면서, 개혁개방과 관계 개선으로 광범위한 접근이 용이해져 중국의 내부 동학을 살피고 국가-사회관계를 고려하여 정치경제적 변화를 진단하는 연구경향이 확산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여기에도 미국 내 연구환경 변화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바움(Baum 2007)은 1990년대 들어 이전보다 대규모 지원은 줄어드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미국 경제의 붐으로 인해 전반적인 재정 상황은 더 좋아졌다고 보았다. 접근 가능해진 방대한 자료 및 현지조사 등과 맞물린 연구환경의 개선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중국 관련 연구와 저작이 급격히 늘어나는 동력이 되었다.⁶⁾

이 시기 중국 국내정치 연구의 대표적 저작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1978년 이래 이어진 개혁개방과 그에 따른 경제성장의 원인을 중국 국내의 정치 상황과 엘리트 간의 경쟁 및 전략적 사고에서 찾았다. 리버탈(Lieberthal 1995, 126-127)은 문화대혁명 이후 피폐해진 경제를 되살리고 기술 발전을

6) 1980년대 후반의 중국연구 저변 확대를 계기로 1990년대 초에 나온 저작 가운데,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 정치의 변화를 진단한 저작으로 D. Solinger, *China's Transition from Socialism* (1993); S. Shirk,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1993); D. Lampton and K. Lieberthal, *Bureaucracy, Politics and Decision-Making in Post-Mao China* (1992) 등을 들 수 있다.

이름으로써 공산당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덩샤오핑의 개인적 신념과 판단을 개혁개방의 주요 추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국내의 정치 안정을 위해 경제를 중시하되, 세계적 기술 발전에 편승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지배를 공고히 한다는 원칙하에 개혁개방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개인의 신념보다는 당시 중국 상황에 비추어볼 때 빠른 성장 전략을 시급히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도 있다. 신속하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정치체제 변화 요구가 일어나 중국공산당의 존립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튼(Naughton 1999, 32-37)은 중국의 이행이 이러한 상황적 시급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자오와 디슨(Zhao and Dickson 2001, 8)도 당시의 중국이 경제 발전과 정치 변화를 맞바꾸는 암묵적인 계약 상태였다고 분석하면서, 정부 정책이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 시민사회는 정치개혁이나 권력의 분배를 보류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중국 지도층의 파벌 경쟁을 직접적 요인으로 분석하는 경향도 한 축을 형성하여, 셔크(Shirk 1993, 23-37)는 1978년 당시 개혁개방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 아니라 덩샤오핑이 승계 경쟁 과정에서 선택한 전략이었다고 보았다. 개혁개방만이 만성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아니었으나, 승계 경쟁 상황에서 혁신적인 개혁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 상무위원회 등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고 보았다.

위와 같이 중국 내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됨과 동시에, 이 시기에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져올 대외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국연구자들 이외에도 많은 사회과학계열 전문가들이 중국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중국연구가 지역연구를 넘어 일반 사회과학 분과로 편입되었고, 학생들도 통계적 방법론, 비교정치경제, 공공선택이론 등의 각종 방법론을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정치경제적 분석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개혁개방 진행에 따라 국가-사회관계 측면에서 당국가의 권위가 약화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⁷⁾ 중앙-지방 행정의 관계 변화를 보면서 분권화 및 새로운 제도 형성이 '연성권위주의'⁸⁾체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려는 연구,⁹⁾ 그리고 구공산권 국가들과 비교하면서 서구 시민사회 모델을 적용하여 저항세력이나 자율적 시민사회의 등장 가능성을 기대하는 연구¹⁰⁾들이 있었다(Baum 2007).

1990년대 이후 미국 내 중국연구는 연구자 및 연구영역의 확장으로 한층 광범위하고 세분화된 경향을 보이게 되었으며, 특히 천안문사태와 1990년대 초 동구권의 변화를 분석하는 다양한 시각과 맞물려 논의가 복잡해졌다. 샴보(Shambaugh 2009, 911-916)는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¹¹⁾ 이후 중국 국내적으로는 천안문사태의 후유증을 상당 부분 극복하고 개혁 개방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연구도 중국의 경제성장과 영향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보았다. 정치권력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고, 대외적으로도 상당수 선진국들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천안문사태 이전의 환경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안문사태 이후 미국 내 중국연구는 전반적으로 학생운동에 크게 공감을 표시하면서 중국정부에 반감을 나타냈다.¹²⁾ 중국이 점차 자유화

7) 이와 관련된 저작으로 앞의 각주에서 언급한 Solinger의 저작을 비롯하여 J. Fewsmith, *Dilemmas of Reform in China* (1994); K. J. O'Brien, *Reform without Liberalization* (1990) 등이 있다.

8) 과거 전체주의 체제에 비하면 사회경제적 자유와 제한된 기본권을 향유하고 있으나,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에는 소극적인 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는 체제를 말함. 동아시아 개발국가(한국, 대만 등)나 싱가포르에서 나타난 정치체제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

9) 중앙-지방 관계 연구로 앞에서 언급한 Shirk, Lieberthal 등의 저작 외에도 J. C. Oi, *State and Peasant in Contemporary China* (1991); M. Blecher and V. Shue, *Tethered Deer* (1996); D. Goodman and G. Segal, *China Deconstructs* (1994) 등이 있다.

10) 관련 저작으로 T. Brook and M. Frolic, *Civil Society in China* (1997); A. Rosenbaum, *State and Society in China* (1992) 등을 참조.

11) 덩소핑이 1992년 1월과 2월에 걸쳐 상해, 우한, 선전 등 남부를 시찰하고 담화를 발표하였던 일로, 천안문 사건 이후 침체되었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다시 활발히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음.

12) C. Calhoun, *Neither Gods Nor Emperors* (1995); R. Baum, *Reform and Reaction in Post-Mao China* (1991); T. Brook, *Quelling the People* (1992); S. Ogden, *China's Search of Democracy* (1992) 참조.

되고 정치적으로도 변할 것이라던 기대보다는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었다.¹³⁾ 국가의 통제에 초점을 맞춘 조합주의 모델이 무게를 얻었고, 부정부패 등 부정적 현상에 관심이 증폭되었다.¹⁴⁾ 1990년대 중반까지도 중국의 정치 개혁 전망은 극히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1990년대 초 구소련과 동유럽의 변화는 많은 비교연구의 주제가 되었고, 상당수 연구자들이 중국에서도 구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들과 같은 체제 붕괴와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과 요인을 찾고자 노력하였다.¹⁵⁾ 이러한 논의는 곧 중국의 부상과 정부의 역량에 대한 논쟁이 되었고, 1990년대 말 중국위협론 논쟁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부상과 위협을 우려하는 ‘강한 중국’ 논의는, 중국 대외관계 연구자는 물론이고 각 정책연구소, 언론 등의 관심을 받으며 경제성장이 군사안보 영역으로 파생되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게 되었다.

한편 중국 국내정치, 사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대외적 위협보다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국내적 혼란을 수습하고 통제할 역량이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도덕적 해이, 부패, 비효율적 지방조직 등 고질적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통제력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 정부의 대응방안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보는 비관론과,¹⁶⁾ 대부분 수습이

13)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정치개혁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담은 저작으로 E. Friedman, *National Identity and Democratic Prospects in Socialist China* (1995); D. Shambaugh, *Is China Unstable?* (2000); J. Fewsmith, *China Since Tiananmen* (2001) 등이 있다.

14) 조합주의와 부패에 관한 연구는 중국 개혁개방 시기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편저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N. L. McCormick and J. Unger, *China after Socialism* (1996); A. Walder,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 (1995) 등을 비롯하여, 중국 출신 학자인 Lu Xiaobo(吕晓波)의 *Cadres and Corruption* (2000) 등을 들 수 있다.

15) 체제 붕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도 있었던 반면, 소련과 달리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중국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체제 붕괴 관련한 비교 연구 저작으로는 L. Dittmer, *Sino-Soviet Normalization and its International Implications, 1945-1990* (1992); M. Pei, *From Reform to Revolution* (1994); B. Dickson, *Democratization in China and Taiwan* (1997) 등 참조.

16) 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함께 중국 정치체제의 지속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미국 내 연구자와 저작으로는 R. Baum, *Burying Mao* (1996); G. Chang, *The Coming Collapse of China* (2001); M. Goldman and R. MacFarquhar, *The Paradox of China's*

가능하며 정부 정책과 개혁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 낙관론 사이의 논쟁이 지속되었다.¹⁷⁾

경제정책 평가에서는 1990년대 내내 충격요법과 점진적 발전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다(Bramall 2000, 5-60). 삭스와 우(Sachs and Woo 1994; Sachs and Woo 1997)로 대표되는 충격요법 지지자들은 중국식의 ‘모델’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반면, 노튼(Naughton 1992)과 러스키(Rawski 1995; Rawski 1999) 등 점진주의자들은 점진적 이행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생산성의 빠른 증가를 가져와 중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물론 점진주의자라고 해도 중국의 점진적인 전략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며, 과정적 부작용을 줄이는 방책일 뿐, 완벽한 시장경제로 편입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은 합의된 대전제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1990년대 후반을 지나 2000년대까지도 급성장을 계속하면서 중국식 경제발전모델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고, 이는 서구 가치체제와 다른 중국의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면서 정치, 안보적 측면의 위협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에 또 다른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중국위협론(“China Threat”)이라는 용어와 함께 논쟁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이나,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부터 각 분야별로 중국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안보적, 정치적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성장과 위기의 논쟁이 있었다. 1989년 천안문사태 당시 위기에 대한 예상이 만연하였고, 1997년 덩샤오핑의 죽음을 전후하여 다시 한 번 위기론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Post-Mao Reforms (1999); B. Gilley, *China's Democratic Future* (2005); M. Pei, *From Reform to Revolution* (1994); S. Shirk, *China: Fragile Superpower* (2007) 등이 있다.

17) 중국 정치체제의 장기적인 지속성과 제도화에 대하여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연구자들과 저작에는 B. Dickson, *Democratization in China and Taiwan* (1997); J. Fewsmith, *China since Tiananmen* (2001); C. Li, *China's leaders* (2001); M. Manion, *Retirement of Revolutionaries in China* (1993); A. Nathan, *China's Transition* (1999); D. Shambaugh, *Is China Unstable?* (2000); K. Tsai, *Back-alley Banking* (2002); D. Yang, *Remaking the Chinese Leviathan* (2004) 등을 들 수 있다.

측면의 위기 논쟁은 중국이 특별한 위기 없이 성장을 지속하면서 장기적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곧 정치, 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군사 분야를 포함하는 대외관계 측면의 중국위협론이 이어지게 되었다.

III. 2000년대 중국위협론 논쟁의 전개와 지속 요인

1. 중국위협론의 확산과 논쟁의 구성

대외정책과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위협론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과 1996년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중국의 미사일 시험, 미국의 항공모함 파견 등 군사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면서였다(이남주 2002, 343-359). 미국 저널리스트인 크라우트해머(Krauthammer 1995)가 기고문 “Why We Must Contain China”에서 중국의 급속한 팽창에 대응하는 적극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을 비롯하여, 정책연구소, 언론, 기업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적극적 정책을 주문하였고, 인권이나 민주화 등의 가치를 내세워 중국에 압박을 가하지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와 중국내 학자들의 반발을 샀고, 그간의 발전 방향에 따라 각 분야별로 연구를 진행하던 미국 내 중국연구자들로부터도 많은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중국위협론 논쟁의 전개 과정과 위협론을 지지한 전문가 및 반대 입장이었던 연구자들의 구성을 살펴보고, 이후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는 데 영향을 미쳤던 연구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이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중국위협론 논쟁은 1990년대 중반이라 하더라도, 1990년대 초부터 중국의 위협(“China Threat”)이라는 표현은 종종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과거 일본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의한 시장 잠식 우려를 표현했던 정도의 의

미로, 중국의 경제적 규모나 성장속도, 비민주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경제발전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미국과 서구세력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 잘 협력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oy, 1994). 1996년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의 시겔(Segal 1996)이 안보적 위협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직접적 위협보다는 지정학적 위치나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적절한 억지(Constraint)정책이 필요하리라는 포괄적인 전망이었다.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존 학계의 중국연구자들보다는 주로 안보 및 군사 관련 정책연구소나 언론에서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번스타인과 먼로(Bernstein and Munro)의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를 꼽을 수 있다. 1997년 국제정치저널인 *Foreign Affairs*의 기고문과 동명의 단행본이 출간되었는데, 타임(*Time*)지의 저널리스트 출신으로 평론가 및 정책연구소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저자들의 정보에 근거하여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역사상 누리던 아시아의 주도권을 회복하려 하고, 이는 아시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국가도 아닌 중국이 아시아에서 경제 발전과 함께 안보적 자신감도 갖추고, 특히 대만을 비롯한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위협하게 되었으며, 테러국에 대한 핵무기 기술 유출이나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포용(engagement)’이나 ‘봉쇄(containment)’ 같은 수사적 토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 입각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장기적 위협의 제거를 위해 중국의 민주화를 도모할 것을 주문하였다.

1990년대 중후반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정책이 지속되면서 중국과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중국위협론은 보수 언론 및 안보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유연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되었다. 워싱

턴 타임즈(*The Washington Times*)의 기어츠(Gertz)는 2000년 *The China Threat*에서 중국의 점진적 변화를 기대한 것이 실수였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국내사회를 억누르고 대외 팽창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용했다고 주장하였다. 군사 기술 유출,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유출, 대만에 대한 위협 등을 제시하면서 태평양 지역 안보는 물론 핵전쟁의 위협도 있다고 보았으며, 중국 지도층이 미국을 속이고 미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성장하는 동안 미국 정부는 위협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대응을 위해서는 장기적 원칙을 세워서 중국을 민주화하며, 지역내 동맹을 돈독하게 하여 위협을 막으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더 키우고 미국적 가치를 확산시킬 것을 주장하였다.¹⁸⁾

군사전문가로서 중국위협론을 주장하며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던 경우로 팀퍼레이크와 트립플렛(Timperlake and Triplett 1999)의 예를 들 수 있다. 공군조종사 출신이자 무기체계 전문가, 중국군사 분석가로 장기간 종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자 인터뷰와 비밀 해제된 문서를 인용하면서 특히 클린턴 정부의 군사 관련 프로그램 및 중국과 테러국들의 연계를 폭로하는 내용이었다. 1999년 5월에 공론화되었던 콕스 보고서(*Cox Report*)를 언급하며,¹⁹⁾ 중국이 미국의 핵무기 기술을 훔쳐 무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동시에 클린턴 행정부가 경제적 이익과 자신들이 정치적 위상을 위해 안보를 희생시키고 중국의 군사적 야심을 채워주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전쟁수행능력과 무기판매 등 위협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춘 중국위협론 논쟁은 언론계와 안보

18) 동 단행본의 205쪽 이하에서 기어츠는 백악관과 정부 기밀문서들을 위협의 증거로 첨부하여 제시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secret, top secret으로 분류되었던 문서를 보여주면서,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의 진정한 위협을 감추거나 축소함으로써 미국 국민의 안보가 위협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9) "Report of the Select Committee on U.S.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Commercial Concer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x Report"], Overview 참조.

관련 연구소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확산되면서, 학계에도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일반 국제관계 전문가들도 점차 중국의 위협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이론에 근거한 위협인식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2000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선거캠페인 당시 라이스(Rice 2000)는 저널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큰 위협으로 중국의 부상을 지적하였고, 2006년도 국방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도 중국의 군사력 확대가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할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현실주의적 세력균형 또는 세력전이 이론에 근거한 역사적 고찰과 현황 파악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연구원인자 칼럼니스트였던 카간(Kagan 2005)은 1차 대전 당시 카이저의 독일이 급부상했던 과거에 비교하면서 새로운 부상하는 세력은 국제 세력균형에 변화를 가져오는 불안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나이(Nye 2006)는 지나친 위협 우려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중국의 부상을 평화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언론 및 정책연구소, 일반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이와 같은 중국위협론에 대하여, 지역연구에 기반을 둔 기존 중국 국내 및 대외관계 연구자들은 비판적이거나 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각국 중국연구자들의 대중국 인식을 종합한 연구에서, 켈러와 러스키(Keller and Rawski 2007, 193-207)는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초점을 두어 위협론에 비판을 시도하였다. 전통적 군사력에만 의거한다면 무력충돌 우려가 있겠지만,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핵무기와 경제적 상호의존이 그러한 충돌을 방지한다고 보았다. 실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며 미국과의 협력을 더 중시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원칙을 가지고 아시아 외교를 한다면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로스(Ross 2006)는 중화 질서의 전통을 내세운 문화결정론은 적절치 않고, 현실주의적 세력전이론을 적용하더라도 현재 중국은 도전보다는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동화되는 측면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을 위협 세력 또는 현상타파세력으로 보는 시각은 대다수 기존 중국 대외관계 연구자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의 내부 상황과 의도를 알고 보면 그 경제적, 군사적 역량이 위협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일례로 하버드대학의 존스톤(Johnston 2003)은 중국위협론이 중국의 부상 자체를 불안요인으로 보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하고, 중국 지도층의 의도가 현상유지인지 현상타파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상타파세력이라고 하기에는 중국은 국제기구 가입도 늘고, 자유무역이나 핵비확산과 같은 국제 규범에도 적응하고 있으며, 지역 내 군사적 균형의 재편을 추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1차대전 당시 독일에 비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하였다. 코넬대학의 크리스텐슨(Christensen 1996)도 중국 인민해방군(PLA) 및 중국 정부의 안보전문가와의 인터뷰에 근거하여, 그들의 인식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 정부도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상타파보다는 현상유지를 옹호하고 있고, 현재의 경제발전과 국가통합을 방해받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대만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므로, 미국과 일본이 대만을 독립시키려 할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1990년대 중반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존스홉킨스대학의 램턴(Lampton 1998)도 중국위협론의 화두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중국은 단기간에 헤게모니를 추구할 의도도 없고, 군비의 확대도 급상승하는 물가를 반영해 보면 그리 큰 폭도 아니며, 유지비의 의미가 크다고 보았다. 물론 중국 대외관계 연구자들 역시 장기적이고 원칙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러한 중국 대외관계 연구자들은 정부의 형성과정에서 위협론을 주장하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절충하고, 중국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제언하면서 중국 외교의 전략 목표를 분석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였다. 골드스타인(Goldstein 2005, 11-12)은 2000년대 이래 미국은 ‘봉쇄’와 ‘포용’ 정책을 혼합하여 대립적 요소를 조절하고 있고, 중국은 강대국의 위치로 도약하면서도 미국 주도의 국제체제에 직접 도전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균형잡힌 전략을 주문하였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미국은 물론 각국으로 퍼져나갔던 중국위협론 논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더욱 확고해지고, 큰 군사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점차 수그러들었다. 중국이 북한 등 동아시아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협력 상대로 각인되면서, 미국 정부도 점차 '위협'이나 '봉쇄'와 같은 공격적 화법을 지양하게 되었다. 미국 내의 논쟁은 대체로 중국의 지속적 성장과 잠재적 불안 요인을 함께 언급하면서, 단기간에 미국에 도전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의견으로 수렴하였다. 경제적으로 중요 행위자이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그에 못 미치고, 군사력이 발전한다 해도 아직 미국에 비하면 현저히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협력 및 안정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특정 이슈로 갈등이 조성될 때마다 중국위협론이 되살아나는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항공모함 진수와 같이, 당장의 군사적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중국 관련 미국 내 연구환경과 연구자 구성에 연결지을 수 있다. 중국위협론 전개 과정의 고찰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의 직접적 위협을 주장하며 적극적 정책을 주문하는 상당수는 일반 국제관계 전문가, 언론, 실무 출신의 정책연구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위협보다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주장하는 신중한 입장에는 학계의 중국연구자를 중심으로 중국 국내 상황을 고려하는 대외관계 연구자들을 다수 분류할 수 있다. 대외정책 연구 관련하여 샴보(Shambaugh 2007, 11-13)는 중국 군사안보 연구가 대학보다는 정책연구소(think-tank)나 컨설팅 업체 등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양적으로 중국 대외관계 연구가 크게 확산되었으나, 정책연구소나 컨설팅 업체 등이 단기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중국을 이해하는 학계의 중국 연구자들과는 인식의 차이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자와 연구환경의 분리가 중국에 대한 기본 인식과 자료의 차이를 초래하였고, 중국위협론 논쟁을 촉발하고 지속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미국 내 중국연구의 환경 및 연구자 구성

(1)

최근까지 미국 내 중국연구 대부분은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에 주목하면서 그 동력과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정치나 대외관계 모두 사회과학 분과 전반으로 이론적 논의가 확산되고, 연구자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왔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와 함께 분야별, 주제별 연구는 세분화되고 분리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위협론 논쟁은 대외관계 연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나, 먼저 중국 지역연구자들의 대중국 인식과 전망의 기반이 되는 중국 국내정치 연구환경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정치 연구자들은 대부분 국내정치의 제도화와 경제, 사회적인 각 요소들이 맞물려 발전을 지속한다는 시각을 취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와 엘리트 파벌 간의 관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정치 현상을 분석하거나, 특정 기관 또는 이슈를 중심으로 세분화된 연구가 많다. 사회경제적 시각에서 지방 및 산업별 개혁 방향과 현상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한 지역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적 접근방식을 활용하면서 비교 연구를 시도하거나 집중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중국 국내정치 연구자의 상당수는 개혁개방의 진행을 국내 정치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정치체제 유지를 위한 당과 정부의 노력, 그리고 제도화를 통해 중국 나름의 발전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례로, 양(Yang 2004, 4-29)은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 지도층이 소련식 노멘클라투라 시스템에 더욱 집착하면서 공산당의 조직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조직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관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즉 중국의 지속적 발전과 부상의 동력은 중국공산당이 확실히 자리를 잡고, 점점 제도화되는 조직적 역량을 통해 개혁정책의 완급을 조절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중국연구가 사회과학 분과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도 크게 늘어났고, 관련 주제도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었다(Prime 2007, 81-82). 재정의 변화, 분권화 등을 통해 개혁개방의 추진 요인이나 함의를 찾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라든지, 지정학적 또는 인구학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증명하는 연구가 많이 등장하였다.²⁰⁾ 비교정치경제 시각에서 구소련 및 동유럽 지역의 체제 이행을 중국과 비교하는 작업도 진행되었다.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대부분 성장의 척도와 그 이유에 대한 논쟁이 되거나, 제도 변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²¹⁾

이와 같이, 국내정치 연구는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 현지 학자들과의 협력연구나 현지조사로 구체적인 자료를 계속 확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세부화된 주제와 시각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으며, 미국 내 중국연구가 방법론적 측면에서 정치, 경제 등 분과별로 너무 얽매어 있다고 지적도 있다. 자칫 데이터 수집이나 현지조사와 같은 연구방법들이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Baum 2007). 오브라이언(O'Brien 2011)은 중국 국내정치가 확산되고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자료가 확대되고 있지만, 동시에 너무나 광범위해진 주제와 자료로 인해 분업이 불가피해지고 전문화, 세분화되어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연구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국

20)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발전이 따른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다룬 저작들은 매우 많으며, 몇몇 예로 환경적 요인을 다룬 E. Economy의 *The River Runs Black* (2004); 중국 농촌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J. Oi의 *Rural China Takes Off* (1999); 중국 사영기업가의 부상을 다룬 M. Pearson의 *China's New Business Elite* (1997); 인구 이동에 관한 D. Solinger의 *Contesting Citizenship in Urban China* (1999); K. Tsai의 *Capitalism Without Democracy* (2007); S. Walcott의 *Chinese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ial Parks* (2003); D. Zweig의 *Internationalizing China* (2002) 등을 들 수 있다.

21)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분석은 *China Economic Review*를 비롯한 관련 저널의 기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중국학자들과의 협력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M. F. Renard (ed.), *China and Its Regions* (2002); G. C. Chow의 *China's Economic Transformation* (2007) 등을 들 수 있다.

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과별 이론의 증명에 그치고 중국에 대한 전망이나 독자적인 관점이 흐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역 학보다는 일반 정치학 저널에 기고하고 인용이 많이 될수록 학계에서 인정 받는 데 더욱 용이한 상황이 이러한 추세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개혁개방 이후 관심의 증가에 따라 더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분야별로 더욱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보니 서로 다른 분야와 주제를 연구하는 중국연구자조차 분리되어 토론도 줄어들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중국 지역연구가 일반 정치학과 너무 분리되어서 문제였다면, 이제 중국 국내연구의 경우 반대로 너무 각 분과로 편입되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접근과 방법의 세분화로 인해 각 연구 성과가 자료 분석과 설명에 머무르고, 정책적 토론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었다. 국내정치 연구가 대외관계나 안보연구와 연계되는 경우도 드물어졌고, 정보나 자료조차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중국 국내정치 및 사회경제적 연구는 대학을 중심으로 중국 나름의 발전 방식과 제도 및 문화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미중 관계 또는 대중국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역할은 일부 중국 대외관계 연구자들과, 그 외 다수의 일반 국제관계학 전문가, 군사전문가, 언론 및 연구소의 전문가 그룹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듯 분화된 상황은 일반 국제관계 전문가나 언론 등에서 중국의 부상 또는 중국 관련 사안에 대하여 진행하는 분석과, 중국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대한 연구가 정보나 의견을 연계하지 못하는 현상을 지속시키게 되었다. 일부 기존 중국 대외관계 연구자들이 중국 내부 상황과 의도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의견을 제시하지만, 상당수 일반 국제관계, 언론, 정책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중국 국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주어진 상황과 이슈에 따라 위협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결국 중국위협론에 대한 발전적인 토론이나 종합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분야별 전문가들이 각각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때에 따라 위협 논쟁이 계속 불거져 나오게 되었다. 중국

관련 정책 제시에 있어서 국내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전문화와 함께 상호 분리된 연구환경에 의하여 위협론과 그에 대한 신중론 또는 비판이 평행선을 그리게 되었다고 하겠다.

(2)

앞에서 1980년대 이후 중국 국내정치와 대외관계 연구자들 사이에서 연구환경이 분리되고 교류가 줄어든 것을 살펴보았다. 중국 국내 연구가 일반 사회과학 분과별로 편입, 전문화되면서 종합적 시각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면, 중국 대외관계와 안보 연구는 중국 대외관계 연구자들과 다른 일반 국제관계 전문가, 언론, 정책연구소 전문가 등의 시각과 접근방식이 너무 구별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부 중국 대외관계 연구자들이 대학에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중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있으나, 언급한 바와 같이 대외관계, 대외정책 연구는 정책연구소나 컨설팅 회사, 언론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수가 정부와의 계약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샴보(Shambaugh 2007)는 중국 대외관계 연구와 전문화된 군사연구 사이에도 주제의 특성과 연구환경이 단절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대외관계 분야에서는 국내연구와의 분리에 더하여, 중국을 주로 연구한 대외관계 연구자들과, 일반 국제관계 전문가, 그리고 군사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 간에 또 다른 분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겠다.

먼저 주로 대학에서 활동하는 중국 대외관계 연구자들의 경우, 학문적 이해를 기반으로 중국 측의 의도와 내부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 대외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당 교수진도 늘어나고, 학계의 중국 대외관계 연구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²²⁾ 또한 중국

22) 미국 내 대학에서 중국 대외관계 관련하여 재직 중인 연구자의 예로 Thomas Christensen (프린스턴대), Lowell Dittmer(버클리대), Peter Hayes Gries(콜로라도대), Avery Goldstein (펜실베이니아), Alastair Iain Johnston(하버드대), David Lampton(SAIS), Thomas Moore(신

계 미국인 연구자 또는 중국 출신 연구자들도 많아지고 있으며, 풍부한 배경지식 및 정보력, 언어 능력 등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²³⁾ 화이트(White 2009)는 1980년대 이후 중국계 미국인 연구자 숫자가 증가하고 중국으로부터 유학생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출신 연구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바람직하게 평가하면서, 학문적 시각과 범위를 넓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중국연구에 기반을 둔 대외관계 연구자들은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역사나 입장을 재해석하기도 하고, 중국 출신 또는 현지 연구자들과의 협력연구도 많이 진행하면서 중국 국내연구와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²⁴⁾ 당내 정치, 중앙-지방관계, 군사 현대화, 민족주의, 시민사회 등 국내적 요소들이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외관계 연구 중 특히 미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배경지식이 풍부한 중국출신 연구자들과 현지조사에 근거한 연구자들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 분야이다. 다자외교, 지역외교, 주변국 및 미국과의 관계 등, 중국의 도전 가능성에 대한 중국연구자들의 신중한 접근은 정책연구소 등의 입장과 곧잘 논쟁의 대상이 된다.²⁵⁾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정책이 나오고, 미중관계 변화에 따라 봉쇄와 포용을 오가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의 분리로 인한 자료와 인식의 차이가 지

시내티대), Margaret Pearson(메릴랜드대), Robert Ross(보스톤대), David Shambaugh(조지 워싱턴대), Allen Whiting(아리조나대) 등이 있다.

23) 중국계 연구자로서 미국 내 대학에서 중국 대외관계 관련 연구를 하는 경우의 예로 Yong Deng(미해군대학), Wang Hongying(시라큐스대), Chen Jian(코넬대), Suisheng Zhao(덴버대) 등이 있다.

24) 관련 연구로는 Lampton의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2001)이 대표적이며, 중국계 연구자들의 저작으로 Y. Hao and L. Su, *China's Foreign Policy Making* (2005) 등이 있다.

25) 아시아, 주변국, 미국과의 양자관계 등에 대한 2000년대 이후의 저작은 매우 많으나, 몇 가지 사례로 D. Shambaugh, *Power Shift* (2005); R. Sutter, *China's Rise in Asia* (2005); B. Womack, *China and Vietnam* (2006); J. Garver, *Protracted Contest* (2001); J. Wilson, *Strategic Partners* (2004); D. Lampton, *Same Bed, Different Dreams* (2001) 등을 들 수 있다.

속되고 있으나, 중국 관련 대외관계 연구는 연구자 구성의 확대 및 주제의 다양화에 따라 국내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 및 지역의 연구자들과의 연계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군사안보 분야는 정책연구소 중심의 군사전문가들이 주도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수의 연구자들이 군사에 특화된 지식과 언어와 자료에 의거하여 정책 제언을 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중국 내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연구자보다는, 더욱 많은 수의 일반 국제관계 전문가들과 정책연구소, 언론, 컨설팅 회사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시각과 자료에 의거하여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 소재 정책연구소 대부분이 중국 대외관계와 안보 관련 전문가를 필수 인원으로 두고 있으며,²⁶⁾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학술적 연구성과보다는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사적 저널이나 사설을 많이 이용한다. 특히 군사 분야는 그 특성상 군사 실무자 출신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학계 밖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보와 같이 대학에서 인민해방군 연구를 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보일 만큼, 군사 연구는 학계에서 위상을 정립하기보다는 정책연구소나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²⁷⁾ 연구자 집단의 규모도 비교적 작고, 전직 군인이나 관련자가 많으며, 일반 대외관계 연구와 달리 중국 출신 연구자가 거의 없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군사 연구의 수요도 늘어났고, 지역안

26) 주로 워싱턴 DC에 소재한 정책연구소에 소속된 중국 대외관계 연구자의 예로는 Minxin Pei (Carnegie Endowment), Richard Bush (Brooking Institute), Nicholas Lardy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Bates Gill, Curt Campbell (CSIS), Murray Scot Tanner (Rand Corporation) 등이 있다.

27) 중국 관련 정책연구소의 군사안보정책 또는 PLA 관련 연구자로, Michael Swaine (Carnegie Endowment), Murray Scot Tanner, Evan Medeiros (Rand Corpration), Bates Gill, Derek Mitchell, Kurt Campbell (CSIS), David Finkelstein, Dean Cheng (CNA Corpration), Roy Kamphausen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Denny Roy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등이 있다.

보, 에너지 안보 등 분야별 연구와 인민해방군(PLA)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고서가 출판되고 있다. 정책연구소에서 상시적으로 출간하는 회의보고서나 편집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RAND 연구소 등 군사 관련 연구소에서 펴내는 보고서가 이에 해당한다.²⁸⁾ 미국기업연구소(AEI), 헤리티지 재단 등에서도 중국 안보와 군사 관련 보고서를 펴내면서 해당 분야의 토론을 주도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토의를 진행하고 시의적절한 대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대체로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대부분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수준이 아직 많이 뒤처진다고 평가하면서도, 군비의 지속적인 증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결국 군사현대화의 목표가 미국과 대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제언하고 있다.

중국위협론의 발생과 지속은 이러한 중국 대외관계 연구자 구성과 환경, 특히 군사, 안보 분야 분석가들과의 연구환경 분리에 기인한 바가 크다. 대중적 이해를 위한 단행본들은 대부분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중국위협론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²⁹⁾ 군사적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불안요소를 부각시키고, 중국의 전략, 중장기적 목표, 군사적 역량 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적절한 대처를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대중을 겨냥하여 중국의 부상과 미국에 대한 도전 가능성, 그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군사, 안보 분석에서는 특히 중국의 군사적 대전략(Grand Strategy)이나 군 예산 및 역량에 초점을 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³⁰⁾ 군대의 역할과 비중이 큰 중국 연구에서 군사 관련 연구가

28) RAND 연구소 주도로 출간된 보고서로는 J. Mulvenon and A. Yang, *Seeking Truth from Facts* (2001); *The PLA as Organization* (2002); *A Poverty of Riches* (2003) 등이 있다.

29) 중국의 '부상'에 초점을 맞춘 저작들의 일례로 M. E. Brown, *The Rise of China* (2000); T. G. Carpenter, *America's Coming War with China* (2005); B. Gertz, *The China Threat* (2000); A. Goldstein, *Rising to Challenge* (2005); S. W. Mosher, *Hegemon: China's Plan to Dominate Asia and the World* (2000); M. D. Swaine and A. J. Tellis, *Interpreting China's Grand Strategy* (2000) 등을 들 수 있다.

30) M. Swaine and A. Tellis, *China's Grand Strategy* (2000); A. I. Johnston, *Cultural Realism* (1995); J. W. Lewis and X. Litai, *China's Strategic Seapower* (1994); E. Feigenbaum,

중요한 것은 사실이며, 일반 대외관계 및 기타 분야와 연계할 필요성도 더 크다. 이를 통해 군사안보 연구도 포괄적인 시각을 갖고, 대외관계 전반이나 국내 연구에서도 더욱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다른 주제 및 분야의 연구와 간격을 좁히고, 토론과 연계를 확장하는 것이다. 중국 대외관계는 물론이고 군사안보 전문가들도 연구환경 분리와 연구자 간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문성과 균형의 측면에서 중국 출신 학자들이 군사 분야에도 많이 진출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다면, 이슈에 따라 갑자기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중국위협론이 등장하는 것보다는 한층 생산적인 논의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IV. 중국위협론 논쟁을 통해 본 미국의 경험과 한국에 주는 함의

지금까지 미국 내 중국연구의 발전과 변화를 정리하면서, 중국위협론 발생배경과 지속성의 원인으로 미국 국내 연구 환경의 특성과 연구자들의 분리된 흐름을 덧붙여 되돌아보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 지속된 중국위협론은 처음부터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다수의 중국 연구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러면서도 미중 갈등, 중국의 부상 관련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많은 보고서와 출판물, 언론 기고 등에서 지속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군사 현대화, 에너지 외교, 금융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국제적 위상이 뒤바뀌지 모른다는 관측과 함께 위협론은 잠재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최근 양국의 원만한 관계를 저해할 우려 때문에 쉽게 공론화되지 않고, 향후 약 20년 정도는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기보다는 점진적 발전과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수렴하는 듯 보이지만, 이슈가 생길 때마다 위협 여부를

China's Techno-Warriors (2003) 등 참조.

다시 상기시키는 주장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중국위협론의 지속과 부침에는 미국 내 중국연구 환경과 연구자의 구성 역시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60년대 이래 발전해 온 기존의 중국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주로 학계에서 국내정치, 경제, 사회 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중국의 대외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 분업이 심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교류가 적어지고 정보의 차이가 커지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중국 대외관계 연구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기존 중국연구자들 외에도 일반 국제관계 전문가, 정책연구소, 언론계 등에서 시사적이고 통계적인 자료를 근거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자 규모의 확대는 다양성과 전문성의 차원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연구환경의 분리로 인해 중국연구자들과 다른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인식과 접근방식의 차이가 계속되면서 논쟁 역시 평행선을 그리게 되었다. 연구 환경이 분리된 상태로 지식이 축적되고, 특히 군사안보 분야의 경우 한정된 연구자들이 모여 따로 논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진단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 내 중국연구의 경험은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한국의 중국연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위협론의 발생과 지속 사례는 연구환경과 연구자의 구성이 분리되고 상호 연계 없이 전문화될 경우,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와 이슈별 갈등은 ‘위협’으로 개념화되어 대중적 관심에 부응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장기간의 중국 연구에 근거한 중국 국내 및 대외관계 연구자들의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근거 자료와 이론적 기반이 서로 분리된 상황에서 논쟁은 사실상 평행선을 그리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 군사 연구를 포함한 중국 대외관계 연구와 중국 국내 및 다른 분야 연구진들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연계하려는 노력이 일부 진행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 전문성과 다양성도 중요하고 위협 우려

에 대한 지적도 계속 필요하지만, 연구환경의 분리 때문에 분야별 연구와 정책 제언이 괴리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현재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위협론이 잦아드는 것 역시 적절한 근거 없이 말만 바꾸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학제간 회의, 협력 연구 등을 통해 연계와 지식의 공유가 확대되면, 중국의 작은 정책변화나 이슈만 발생해도 도전과 전쟁을 우려하며 중국위협론 논쟁이 불거지는 현상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이다. 분리된 환경과 시각을 넘어 중국의 발전이나 대외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에서 최근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 수요가 늘면서, 중국연구를 위한 환경과 재정적 지원도 늘어나고 연구진의 규모도 확대되는 것은 향후 원칙 있는 대중국 정책의 수립과 전반적인 지식의 확장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다. 그러나 몇 십여 년의 발전 과정에서 확대와 전문화로 인한 분리를 경험하면서 미국 내 중국연구가 종합적인 시각을 갖기 어려워지고, 논쟁의 발생 시 합의점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될수록 발전적인 연구성과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그 만큼 늘어나게 되는 바, 유기적인 협력과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과 그 연구의 수요자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투 고 일 : 2011년11월23일]

[심사완료일 : 2012년05월27일]

[게재확정일 : 2012년07월21일]

참고문헌

- 이남주. 2002. “[한중수교10년] 미국에서 ‘중국위협론’의 부상과 변화.” 『역사비평』 61: 343-359.
- Baum, Richard. 2007. “Studies of Chinese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Robert Ash, David Shambaugh, and Seiichiro Takagi, eds. *China Watching: Perspectives from Europ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p. 147-68. London: Routledge.
- Bernstein, Richard and Ross H. Munro. 1997.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Alfred A. Knopf, INC.
- Bramall, Chris. 2000. *Sources of Chinese Economic Growth, 1978-1996*. Oxford University Press.
- Christensen, Thomas J. 1996. “Chinese Realpolitik.” *Foreign Affairs* 75(5): 37-52.
- Gertz, Bill. 2000. *The China Threat: How the People’s Republic Targets America*. Washington D.C.: Regnery Publishing, INC.
- Goldstein, Avery. 2005.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rding, Harry. 1984. “The Study of Chinese Politics: Toward a Third Generation of Scholarship.” *World Politics* 36(2): 284-307.
- Harding, Harry. 1993. “The Evolution of American Scholarship on Contemporary China,” in David L. Shambaugh, ed. *American Studies of Contemporary China*, pp. 14-40.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 Johnston, Alastair Iain. 2003. Is China a Status Quo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4 (Spring 2003), pp. 5-56.
- Kagan, Robert. 2005. “The Illusion of ‘Managing’ China.” *Washington Post*, May 15.
- Keller, William W. and Thomas G. Rawski. 2007. “China’s Peaceful Rise: Road Map or Fantasy?” *China’s Rise and the Balance of Influence in Asia*, pp.193-207.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Krauthammer, C. 1995. "Why We Must Contain China." *Time*. 146(5): 72. July 31.
- Lampton, David M. 1998. "Think Again: China." *Foreign Policy* 110 (Special Edition: Frontiers of Knowledge): 13-27.
- Lieberthal, Kenneth, 1995. *Governing China*. W.W. Norton & Company.
- Lindbeck, John M. 1971. *Understanding China: an Assessment of American Scholarly Resource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Naughton, Barry. 1992. "How to Reform a Planned Economy: Lessons from China."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8(1): 130-143.
- Naughton, Barry. 1999. "China's Transition in Economic Perspective." Merle Goldman and Roderick MacFarquhar, eds. *The Paradox of China's Post-Mao Reforms*. pp. 30-46.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ye, Joseph, Jr. 2006. "The Challenge of China." Stephen Van Evera, ed. *How to Make America Safe: New Policies for National Security*. Tobin Project.
- O'Brien, Kevin J. 2011. "Studying Chinese Politics in an Age of Specializ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71): 535-541.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1.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of America.
- Page, Jeremy. 2011. "China Flexes Naval Muscle." *The Wall Street Journal*, August 11.
- Perry, Elizabeth J. 1994. "Trends in the Study of Chinese Politics: State-Society Relations." *The China Quarterly* 139: 704-713.
- Prime, Penelope B. 2007. "Studies of China's Economy in the United States." Robert Ash, David Shambaugh, and Seiichiro Takagi, eds. *China Watching: Perspectives from Europ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p. 80-96. New York: Routledge.
- Rawski, Thomas G. 1995. "Implications of China's Reform Experience." *The China Quarterly* 144(1): 1150-1173.
- Rawski, Thomas G. 1999. "Reforming China's Economy: What Have We Learned?" *The*

- China Journal* 41: 139-156.
- Rice, Condoleezza, 2000. "Campaign 2000: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79(1): 45-62.
- Ross, Robert S. 2006. "Balance of Power Politics and the Rise of China: Accommodation and Balancing in East Asia," *Security Studies* 15(3): 355-395.
- Roy, Denny. 1994. "Hegemon on the Horizon? China's Threat to East Asian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19(1): 149-168.
- Sachs, Jeffrey, Wing Thye Woo, et al. 1994. "Structural Factors in the Economic Reforms of China,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Economic Policy* 9(18): 102-145.
- Sachs, Jeffrey. D. and Wing Thye Woo. 1997. *Understanding China's Economic Performanc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Segal, Gerald. 1996. "East Asia and the 'Constrainment' of China," *International Security* 20(4): 107-135.
- Shambaugh, David L. 2007. "Studies of China's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Robert Ash, David Shambaugh, and Seiichiro Takagi, eds. *China Watching: Perspectives from Europ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p. 213-240. New York: Routledge.
- Shambaugh, David L. 2008. *China's Communist Party: Atrophy and Adaptation*.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 Shambaugh, David L. 2009. "The China Quarterly and Contemporary China Studies." *The China Quarterly* 200(1): 911-916.
- Shirk, Susan L.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imperlake, Edward and William C. Triplett II. 1999. *Red Dragon Rising: Communist China's Military Threat to America*. Washington D.C.: Regnery Publishing, INC.
- White, Lynn T. III, 2009. "Chinese Political Studies: Overview of the State of the Field."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14(3): 229–251.

Yang, Dali L. 2004. *Remaking the Chinese Leviathan: Market Transition and the Politics of Governance in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Zhao, Jianmin and Bruce J. Dickson, eds. 2001. *Remaking the Chinese State: Strategies, Society, and Security*. Routledge.

ABSTRACT

Revisiting “China Threat” Discourse through the Changing Trends of Chin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Yuree Kim

G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ses the causes of the debate on “China threat theory,” which have been an issue throughout the 1990s and 2000s, by reviewing the trends and research environments of Chin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Looking into the background of the “China threat” debate regarding the changes of the research environment in the U.S., this paper tries to complement previous studies on the China threat. After introducing the development of China studies in the U.S., the paper points out the divisions and specializations among studies of Chinese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 the 1980s, and another trend of division in studies of foreign relations and security policies. The studies of Chinese domestic politics, mainly conducted by scholars in universities, have become more academic and detailed on the issues of Chinese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On the other hand, studies of foreign and security relations have been conducted not only by China experts, but also by many general IR experts, policy-oriented think tanks, journalists and consulting firms. The continuity of these division and separation has led to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perceptions and information. Due to such widening gap among scholars,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e “China threat” debate would be resolved in a productive way. As China continues its rapid growth, it is critical to bridge this gap and promote more connections and cooperation among between different fields. It is also important for Korean academia, which now started to promote and expand China studies, to get some implications from the U.S.

experience to develop a more comprehensive and balanced set of policies toward China.

Keywords: China Threat, Chin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Chinese Domestic Politics, Chinese Foreign Relations